불법건축 판치는 문화수도 ⑥무작위 점검해보니

체력단련장은 노래방 옥상은 사무실로 둔갑

광주일보가 지난해 사용 승인이 난 건축물 가운데 무작위로 두 곳을 선정해 점검을 한 결과 모두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을 적발했다.

근본적 원인이 건축주의 잘못된 의식은 물론 나아가 설계, 감리, 사용승인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건축사들의 잘못된 관행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광주시 서구청 건축과 단속반원과 함께 단속을 나간 광주시 서구 동천동 5층 건물은 도면상 건물 앞 부지에 8면(92㎡)의 주차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지만 주차장 4면의 절반 이상이 불법 확장된 간이시설로 사라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실제 주차된 차량들도 절반 가까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도면상으로는 건물 옆으로 녹지 공간 등이 표시돼 있지만 간이시설을 설치해 저온 창고를 두고 있었다. 또 5층은 체력단련장으로 허가가 났지만 실제는 노래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인근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위 건물 바로 앞 건물은 5층 건물로 허가가 났지만 건물 옥상에 불법 임시건물을 무단 증축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고, 인근 6층 건물도 옥상에 불법 임시건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어 찾아간 광주시 서구 쌍촌동 2층 건물도 불법 건축물이었다. 도면상에는 건물 왼편에 2면의 주차장을 갖추고, 건물 주위에 통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면의 주차장 위에 11㎡의 불법 임시건물을 설치해 자재를 보관하고, 통로공간의 일부에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날 두 곳의 건물을 선정해 점검을 한 결과 건물 모두에서 건축주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모두 철거조치를 하거나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광주시 5개 자치구가 지난해 9월 말까지 불법건축물을 단속한 결과 ▲동구 53건 ▲서구 183건 ▲남구 124건 ▲북구 371건 ▲광산구 1243건 등 모두 1974건이 단속됐다.

서구의 경우 전체 단속된 건축물 가운데 절반이 원룸이었고, 광산구는 단속한 원룸의 90% 이상이 무단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등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축주가 임의로 무단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계와 준공 단계에서도 건축사들이 용도변경의 여지를 남기고 건물을 짓기 때문이라는 게 관할 구청의 지적이다.

실제 1가구를 2가구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화장실을 2곳 만들고, 출입구를 만든 뒤 벽면으로 감싸 감추는 사례도 있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새해소망 기원 풍등축제

임진년 새해를 맞아 9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친수공원에서 동림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새해소원 기원 풍등축제'에서 시민들이 새해 소원이 적힌 풍등을 날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절도범 사진 내붙인 편의점

"초상권 침해" VS "오죽 했으면" 논란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편의점이 매장 내 절도사건이 잇따르자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매장 입구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편의점 측은 9일 "지난달 말부터 매장 내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을 복사해 발생 시간과 함께 매장 입구에 게시〈사진〉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이를 예방·계도하는 차원에서 CC-TV를 분석해 심증이 가는 장면만을 골라, 공개하게 됐다"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편의점은 실제로 매장문에 게시된 사진을 보고 찾아와 물건 값을 계산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혐의만 추정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초상권 및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모(25)씨는 "물건이 도난당하는 것에 대한 매장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손님을 범죄자로 보는 것에 불쾌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자칫 확실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했다간 특정인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편의점 측은 문제가 일자 게시된 사진을 자진해서 떼어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현오 청장 "이제는 경찰이 검찰 통제해야"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제는 우리가(경찰이) 검찰을 통제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해 눈길을 모았다.

조 청장은 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학교폭력 관련 시민간담회에 이어 현장직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사권과 관련해서 인권문제가 이야기되고 국가인권보호기관으로서 검찰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정 건수가 우리가 검찰의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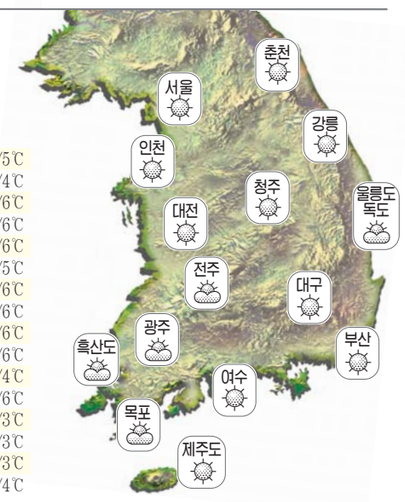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8분 달뜸 18시 47분 달짐 08시 00분

아침 안개 주의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가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구름많음	-2/5℃
목 포	구름많음	-1/4℃
여 수	구름조금	-1/6℃
나 주	구름많음	-3/6℃
완 도	구름많음	-1/6℃
구 례	구름많음	-3/5℃
강 진	구름많음	-2/6℃
해 남	구름많음	-4/6℃
장 흥	구름많음	-3/6℃
순 천	구름조금	0/6℃
영 광	구름많음	-2/4℃
진 도	구름많음	-2/6℃
전 주	구름많음	-3/3℃
군 산	구름많음	-3/3℃
남 원	구름조금	-5/3℃
흑산도	구름많음	4/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밀물	썰물
목포	02:23 15:08	07:49 20:28
여수	09:56 22:01	03:24 15: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날 씨						
최저/최고	-4/2	-6/2	-3/5	-4/5	-3/6	-1/6

광주·전남 내일부터 '반짝추위'

서해안 일부 약한 눈발

광주·전남 지역은 11일과 12일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은 10일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11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한 눈발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영하 8도에서 3도 분포로 평년(최저기온 영하 8~0도, 최고기온 4~7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1~2mm)보다 적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12일까지 이어지다가 13일 오전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큰 눈 소식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